

기름값 인하 종료... 가격 변동 적을 듯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 단계적 인상 방침

정유사들의 기름값 한시 인하가 종료됐지만 소비자 가격이 당장 큰 폭으로 인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 4월 정유사들이 기름값 인하 당시 'ℓ 당 100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혔으나 인하 조치가 환원된 시점까지 인상 금액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밝힌 정유사가 없는데다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정유사와 주유업체 모두 급격한 인상은 주저하기 때문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보통휘발유 ℓ 당 평균가격은 각각 1901.98원, 1902.10원을 기록했다.

주유소 업체는 당분간 이 가격에서 20~30원대의 인상은 있어도 보통휘

발유 평균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ℓ 당 2000원선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지회 관계자는 "기름값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반응이 예민하기 때문에 정유업체와 주유업체 모두 큰 폭의 인상을 쉽게 하기도 어렵고 현재는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유업체는 지난 4월 정유사 공급 가격이 100원 내렸을 때 한 박자 느리게 반응해 비난을 받았다. 그런데 할인 방침이 끝나자마자 기름값을 대폭 올리면 '제 배 불리기'만 한다는 따가운 시선이 아무래도 부담스럽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기름값 인하 조치가 환원되더라도 당장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판매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내놓기도 했다. 재고 소진 문제와 주변 주유소와 경쟁 구도 등도 기름값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서구의 한 주유소 업주는 "기름값 인하 당시 재고를 이유로 바로 ℓ 당 100원이 인하되지 않았던 것처럼 공급가 인상되던 전 재고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고가 없어 오르면 공급가에 기름을 받은 주유소들도 다른 업소와 가격 경쟁 때문

에 쉽게 인상을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체도 당장 공급가를 큰 폭으로 올릴 계획은 없다. GS칼텍스는 지난 5일 ℓ 당 100원

인하 기한이 끝나도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번에 ℓ 당 100원을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공급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외에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Oil은 아직 구체적인 인상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정부의 압박에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인 GS칼텍스의 방침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처럼 단계적 인상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시장 특성상 한꺼번에 공급가를 100원을 올리는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 SK에너지가 100원 할인을 시작했을 때 다른 업체가 모두 따라갔듯 GS칼텍스가 가격을 단계적으로 환원하면 다른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

기다. /임동률기자 exian@연남뉴스



6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에서 광주은행 7급 신입직원 21명이 연수 입교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은행 신입 21명 연수 입교

광주은행은 6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7급 신입직원

21명에 대한 연수 입교식을 갖고 양심인 양성에 들어갔다.

입교식에서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성공하려면 반걸음만 앞서가라"는 '영선반보(嶺先半歩)'의 의미를 되새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즉시

운동 가능한 청구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CEO특강, CS교육 등 기본 소양교육과 창구 무의영점점 학습, 전산실습 등 직무교육과 영점점 현장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간질환 어린이에게 희망을"

광주신세계 17일까지 바자회

광주 신세계가 선천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정기남(7)군 돕기에 나섰다.

광주 신세계는 6일부터 17일까지 모금행사와 3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기남이에게 희망을' 바자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군에게 '희망배달' 기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정군은 어려운 가정 환경과 선천성 간질환으로 인해 간경화와 비장비대,

정맥류가 동반되는 등 현재 간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광주 신세계는 이미 정군의 수술과 생활안정을 위해 '희망배달' 기금으로 3000만원을 마련했다. '희망배달' 기금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래 2억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6일 1층 시민광장에서 선천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정기남(7)군을 돕기 위해 '기남이에게 희망을' 바자회를 열었다. /최혜나기자 choi@kwangju.co.kr



박지현의 **살림 레슨**

깨끗이 씻은후 바삭 말려 통에 보관
우려 마시거나 밥 해먹으면 장 트든

■ 썩차·민들레차 만들기

장마가 시작됐다. 며칠 비 내리고 나니 풀이 한 자나 키를 키웠다.

잔디 마당인데도 얼마나 잡초가 많았던지 지나가는 바람에 '풀이 늙는다'를 지켜봤다. 뾰pest하던 텃밭의 상추는 부들부들 순해졌고 길가 변 민들레와 썩은 그기를 훌쩍 키웠다. 낮으로 민들레 이파리 조금 그리고 썩 몇 주먹 베어온다. 바로 우리 가족이 마실 차를 만들기 위해서다. 말이 거창해서 '차'지 않고 보면 풀 말려 우려먹은 것이 전부인데 재료의 환원과 방법의 간단함에 비해 맛이 운치 재밌다.

사실 썩차와 민들레차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살짝 말려 우려 하는 것과 효소처럼 생숙을 살탕에 절이는 법 그리고 갈아 만든 것 등 말이다. 나 역시 민들레를 우려 만든 적이 있는데 그냥 말린 것과 우려낸 것의 맛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말린 것이 쓴 맛이 나지 않아 마시기 편했다. 그렇게 찾게 된 '최고 간단' 썩차와 민들레 차 만드는 법을 여기에 소개한다.

먼저 썩차. 단오 무렵의 썩은 약성이 뛰어난 차로 '최고로 친다' 한다.

단오는 지났으나 지금도 크게 상관없다. 먼저 제법 자란 썩을 밑동까지 낫으로 베어 낸다. 깨끗이 씻어 물기 뺀 것을 끈으로 조금씩 묶어가며 굵비 엮듯 엮는다. 한 덩어리로 완성되면 바람 부는 그늘에 3일 이상 말리는데 혹시 '늙눅하긴 하고 마르지 않는다' 생각되면 약한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도움이 된다. 바삭 마르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통에 담고 김 봉지 등에서 나온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좋다.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피지 않아 두고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차를



잘 마시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려 낸 썩 차로 밥을 해 보라. 썩 향이 강하지 않아 부담이 없으면서도 속은 편안하게 그리고 장은 튼튼하게 해준다. 민들레차 역시 씻어 말리는 것으로 썩 차와 만드는 방법이 같다.

예전 어느 글에서 '민들레의 덕'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나쁜 환경을 견뎌내는 인(忍) 뿌리가 잘려도 새싹이 돋는 강(剛) 꽃이 한번 피지 않고 차레로 피므로 예(禮) 여러 용도로 사용되니 용(用) 꽃으로 밭이 배부르므로 덕(德) 줄기를 자르면 흰 액이 나오므로 자(慈) 약으로 이용하면 노인의 머리를 검게 하니 효(孝) 흰 액이 모든 종기에 효험이 있어 인(仁) 씨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멀리 나가 새로운 후대를 만드니 용(勇)"이라는 내용이다.

민들레뿌리가. 썩 역시 원목 후에 유일하게 돌아온 식물로 '모든 풀의 왕초'라 불리니 민들레의 덕 몇 가지는 가진 듯하다. 그리고 보니 잡초라 부르던 것들이 따뜻한 차 한 잔이 되더니 한번쯤 생각해 하는 뜻을 전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주의사항> 민들레는 찬 성질이므로 몸이 찬 사람은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썩차 역시 저혈압 환자에게 좋지 않다 하니 자신의 체질과 효능을 알고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겠다.

<담양떡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명품, 할인 안해도 잘팔리네"

루이비통 등 상반기 매출 20% 이상 신장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 않아 눈총을 받고 있는 루이비통과 구찌 등 '명품브랜드'의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 백화점 루이비통의 올 상반기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나 늘어났다. 페라가모의 매출 신장률도 지난해보다 6% 증가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구찌의 올 상반기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4%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 명품브랜드인 루이비통과 구찌는 월별 매출 신장률을 보더라도 1월 55%·31.1%, 2월 30%·48.7%, 3월 36%·27%, 4월 59%·31.3% 등 매월 27~55%의 높은 신장세를 기록 중이다.

가격 인상폭이 클수록 매출 증가가 두드러져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속설을 입증한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산 명품 브랜드들이 본고장인 유럽이나 과거 오랫동안 세계 최대 명품 소비국이었던 일본에서 성장률 정체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 시장에서의 20~50%대

의 성장세는 이례적이고 고무적인 수치다.

최근 많은 유럽 명품 브랜드 최고경영자(CEO)들이 왔다뒤 한국을 찾는 것도 이 같은 폭발적 성장세가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 백화점 명품브랜드 담당자는 "합리적 소비가 정착된 유럽이나 일본에서 성장률 저하로 고심해온 명품 브랜드들이 최근 명품에 대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루이비통과 구찌 등은 다른 명품 브랜드들이 세일에 돌입해도 전혀 세일을 하지 않는 일명 '노 세일 브랜드'로 유명해 '비쌀수록 잘 팔린다' 현상이 지속되는 한국내 소비자들은 명품을 향한 열망을 이루기 위해 계속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남뉴스

古家 고향의 맛
고가 한식 뷔페 오픈

일시 중단 하였던 한식 뷔페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 드릴 **한식 뷔페**에서 **맛과 정성**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된 진한 육수의 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약소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13,000원
약오리탕 반마리 20,000원 1마리 4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한/식/뷔/페 6,000원

고가 한식뷔페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연비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약오리 백숙, 향암옥수 샤브샤브, 눈코.입을 동시에 즐겁게 하는 즉석 불꽃구이, 효소 웰드덕 쪼, 한방오리구이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쉐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솔순 **"발효 효소"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점심특선**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봉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는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